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4. 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, 성인 중 6%가 총기난사에 쓰이는 '반자동 소총' 보유
 - 3.31 언론은 여론조사 기관(Ipsos)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, 미국 성인 중 1천6백만명(약 6%)이 총기난사 사건에 주로 등장하는 'AR-15 반자동 소총'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
 - ※ (성별) 男 81%, (인종) 백인 74%, (목적) 방어용 33%·여가용 15% 등으로 분류
- 美 법원, ISIS에 가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'징역 20년' 선고
 - 4.3 언론은 美 마이애미 연방법원이 미국 시민권자 「에프란 알리」(55)에게 ISIS에 송금서비스 제공 및 기부 등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
 - ※ FBI는 同人이 가족을 시리아로 이주시키고 종교 및 군사훈련에 투입한 후 ISIS에 합류할 생각이었다고 부언
- 美, 이슬람 무장조직 ISIS 고위간부 사살
 - 4.4 美 중부사령부는 시리아 북서부에서 유럽 내 테러 공격을 모의하던 ISIS 고위 지도자 「칼리드 아마드 알 자부리」를 사살했으며, 이로 인해 ISIS의 외부공격 계획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발표

유럽

- 불가리아, 이메일 폭탄 위협으로 전국 학교 휴교
 - 3.30 언론은 지난 27~28일에 불가리아에서 '모든 학교에 폭약이 설치되어 있으며 곧 모든 학교가 폭발할 것'이라는 이메일 폭탄 위협(102건)으로 수십 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검찰이 테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불가리아 내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공격이라고 언급

아 · 태평양

- 韓 경찰청, 캐나다 경찰청과 국제 공조 MOU 첫 체결
 - 3.30 언론은 한국 경찰청과 캐나다 연방경찰청이 테러·마약 등 국제범죄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했다고 보도
 - ※ 同 협약은 '21년 캐나다 경찰청 제안으로 시작, 2년간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
- UN, 동남아시아 '폭력적 극단주의 대응'을 위한 회의 개최
 - 4.3~6 UN대테러센터는 방콕에서 '동남아시아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(Preventing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)'을 위해 汎정부적·사회적 관점에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

중 동

- 이집트·시리아 국교정상화 논의 등 아랍권 '화해 분위기' 고양
 - 4.1 외신은 '11년 '아랍의 봄*' 후 국교가 단절되었던 이집트-시리아間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, 근시일 內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최근 사우다-UAE 관계 회복 등 아랍권 '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
 - * '11년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발생한 민주주의 혁명으로, 이집트·시리아 등 국가에서 내전 촉발
- 이스라엘, 국가안보장관 아래 '국가방위군' 신설
 - 4.3 이스라엘 閣議는 지난 2일 극우파 국가안보부 장관 휘하에 '국가방위군' 신설案을 통과시켰으며, 同조직은 아랍계 자국민들과 유대인들의 무력충돌 등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전담부대라고 발표
 - * 이에 야당대표는 "국가안보부 장관이 자신의 사조직 깡패군단을 국가방위군으로 둔갑시켜 테러와 폭력을 자행하려 한다"고 맹렬히 비난

이란, 성전 內 시아파 성직자 대상 흉기테러

- '22.4.5 이란 마슈하드市 소재 '이맘 레자 성전'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 「모라디」(20대)가 시아파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흉기테러를 자행(사망 2·부상 1)
 - ※ 사건 당일은 라마단 기간으로 수천 명의 시아파 군중들이 운집한데다, 사건 현장이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퍼지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
 - 테러범은 자신의 형제를 포함한 공범 6명과 함께 同테러를 모의하였으며, 테러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판 끝에 사형 집행
- 사건 직후, 이란 당국은 “테러범이 종파간 혐오에 기반한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 ‘탁피르’에 경도되어 종교적 테러를 감행하였다”고 발표
 - ※ 「모라디」는 테러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으로 밀입국하였으며, 종교적 목적 테러공격 혐의는 인정하였으나, 배후 자백은 거부
- 한편, 배후로 지목되었던 탈레반 등 수니파 테러단체들은 이란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하여 공식 성명을 통해 혐의를 부인

< 탁피르(Takfiri) >

- (의미) 탁피르는 아랍어로 ‘배교자’ 또는 ‘불신자’를 뜻하는 어원에서 비롯되었으며, 이슬람 교도가 다른 이슬람 교도의 율법위반행위를 비난·처벌·고발하는 행위를 뜻함
- (기원) 역사적으로 7세기에 시작된 이슬람 시아파↔수니파 간 종파갈등에서 상호간 적대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, 권력투쟁·정적 숙청 등에 악용
- (역사) 20세기 후반, 탁피르는 중동·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슬람 정권 수립의 정당성으로 활용되었으며, 이후 알카에다·탈레반·ISIS 등 테러조직의 사상적 기반으로 변질
- (최근동향) 인구 內 종파 구성이 불균형적인 국가(이란, 이라크)에서 他종파 박해 구실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으며, 특히, 이란 ‘이맘 레자 성전’ 테러처럼 개인 또는 소규모 극단주의 조직의 종교적 테러공격의 주요 동기로 작용